“본래서원 잊지 말고 속환사바하소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정관 대종사 영결식 봉행

범어사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
원로의장 등 2000명 운집 추모
보살행 실천 정관 대종사 기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영결식이 1월 30일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사진은 다비식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보살의 삶을 실천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영결식이 1월 30일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해 정관 대종사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영결식은 방장 지유 대종사와 문도의 헌향 및 헌다로 시작했으며 행장소개로 정관 대종사의 삶을 함께 회고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의 영결사 이후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법어가 전해졌으며 내빈들은 추도사, 조사로 정관 대종사의 열반을 추모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영결사에서 “정관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산문에 귀의해 조계종단의 최고 스승이신 동산 대종사 슬하에서 일념정진 하셔서 불조의 공안을 투득하셨다”면서 “종단의 중요 주지 등의 소임을 맡아 원만히 수행해 범어사와 종단의 발전과 안정된 중흥의 기틀을 다졌고, 불교 포교적인 면에서도 현대화와 대중화에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상찬했다.

이어 “스님께서는 무상의 천변만화 속에서 변즉불변의 진상을 오늘 대중에게 보여 주셨다”며 “사부대중은 첨앙하고 합장발원하니 정관 대종사시여! 스님께서는 이제 적정무위락을 수용하시다가 본래서원 잊지 마시고 속히 사바에 돌아오시라”고 기원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일면 스님이 대독한 추모 법어를 통해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 원적의 모습을 보이셨다”며 “대종사께서 보이신 수행이력과 원적의 모습은 후학을 경책한 장군죽비 소리이며, 생사본무(生死本無)의 도리를 보이신 무진법문(無盡法門)이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혜일 스님의 추도사 대독을 통해 “정관(正觀)한 수행자의 삶은 언제나 수처작주(隨處作主)이니 수행처에서는 머리카락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한 치도 정로(正路)에서 벗어남 없이 용맹정진하셨고, 소임처에서는 도량을 세우고 융성하게 하셨다”며 “어려운 이를 만나면 복지기관을 세워 돕고, 포교 현장에서는 각계각층에 적합한 방편을 쓰고자 다양한 불국토 법인을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삶이셨으며, 다시 무상의 법문을 사바에 펼치고자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 윤석열 대통령,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의 조사가 전달됐다.

대중들은 헌화하며 정관 대종사가 속환사바해 대중과 함께해 줄 것을 기도했다. 문도를 대표해 범산 스님이 감사 인사말을 전했으며, 발인을 위해 대중들은 만장기를 들었고 스님의 영정과 위패 그리고 법구를 이운했다. 스님의 법구는 범어사 대웅전 앞을 떠나 일주문에서 노제를 지냈으며 경내 곳곳을 돌아 연화대로 이운됐다. 만장기가 줄지어 장엄한 가운데 스님의 법구는 대중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연화대에 안치됐다.

대중들은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속환사바하소서”라며 오열했고 ‘나무아미타불’ 염불 속에 스님의 법구는 지수화풍이 되어 금정산으로 흩어졌다.

정관 대종사는 1933년 1월 4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에서 아버지 창녕조씨 병옥 선생과 어머니 밀양손씨 기윤 여사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양친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여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하여 어릴 때 집에서 산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해 미군부대에서 헌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으며 청년기에는 춘원 이광수 선생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읽고 감동받았고, 누더기에 걸망을 멘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동경의 마음을 품었다. 이후 1954년 출가발심을 일으켜 부산 금정산 범어사의 하동산 스님을 찾아뵙고 출가했으며 행자시절 은사인 동산 스님은 “경주에서 왔고 이름이 중환이니 경환이라 하자”며 법명을 경환으로 지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절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다 문득 ‘뭐든지 바로 보면 안 될 것이 없을 터’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은사 스님에게 법명을 ‘정관’으로 하겠노라 말했다. 동산 스님은 “정관으로 하되, 혹여 실수라도 하면 그게 정관(正觀)이겠느냐”라며 꾸짖었지만, 이내 법명을 허락했다.

1961년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70년 제방선원에서 14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1972년 영주암 중창불사를 시작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스님께서는 학생회, 청년회를 창립했으며 법당과 요사채(최정원)를 건립했다. 또한 범어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불국토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불교사회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관 대종사는 불기2567년 1월 26일 오후 6시 저녁 공양 후 상좌 범산 스님과 손상좌 등 대중을 불러 “세속에 얽힌 살림살이는 때가 되면 방하착을 해야한다. 때가 되어 방하착이 안되면 안되는 만큼 큰 화가 된다. 지극한 신심으로 열심히 본래의 마음을 챙기고 정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오후 7시 2분 영주암 본래지당에서 세납91세, 법랍 70세로 원적에 들었다.

한편 정관 대종사의 49재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 매주 수요일 봉행된다. 5재인 3월 1일은 불국정사에서 막재인 3월 15일은 범어사에서 봉행 될 예정이다.

선운사 문화재구역 입장료 무료 결정

2월 1일부터 무료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주지 경우)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며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선운사와 고창군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성인기준 3000원의 선운산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방문의해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해주신 선운사와 경우 스님께 감사하다”며 “국가지정 보물 8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사찰인 만큼 고창군에서도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에만 195만 8000명이 찾는 고창군 대표 관광지다. 선운사가 보유한 국가지정 보물로는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고창 선운사 대웅전 △고창 참당암 대웅전 △고창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만세루 등이 있다. 선운사는 봄이면 동백꽃과 가을 꽃무릇이 만개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이번 선운사 관람료 무료 결정으로 인해 고창시 관광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를 추진하며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의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바꿔주며 무료화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업무약정 체결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진행



전주서원시니어클럽(관장 우림)이 1월 27일 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지사장 허도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업무약정은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와 업무약정 체결을 통해 전주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올해 실시되는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신규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총 6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덕진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자태그(비콘) 부착 상태확인 및 복지용구제도 안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 우림 스님은 “이번 업무약정체결을 통해 만 60세 이상 퇴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이 운영하는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소득창출을 위해 올해에도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총 1599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 자비의 쌀

백미 5t 대전광역푸드뱅크에 지정 기탁



한국불교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원장 초암)이 대전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비의 쌀 5t을 기탁했다.

초암 스님은 1월 26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백미 5t(10kg 500포, 1500만 원 상당)을 대전광역푸드뱅크에 지정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대전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내 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장애인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초암 스님은 “이번에 전달되는 자비의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환경정화 울력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지리산전남사무소(소장 윤명수)와 함께 2월 1일 ‘제1회 지리산 화엄사-연기암 어머니숲길’과 계곡 일대에서 환경정화 울력을 진행했다.

이날 울력에는 주지 덕문 스님, 부주지 우석 스님, 선원 스님 등 50여 명과 유시문 구례군의장, 국립공원 직원, 야생생물보전원, 지리산탐방원 등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해 계곡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와 연기암까지 ‘어머니숲길’로 불리고 있다”며, “지리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참여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마음을 정화하듯 어머니숲길을 거닐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정화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흥천사 자비의 쌀 기탁

주민센터에 쌀 30포 기탁
취약계층 등에 전달 예정



군산 흥천사(주지 법운)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30포(300kg. 8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흥천사 주지 법운 스님과 신도들은 1월 26일 군산시 해신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80만 원 상당의 백미(10kg) 30포를 기탁했다.

이날 흥천사가 전달한 자비의 쌀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법운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이 전해져 건강하고 희망찬 2023년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섭 해신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흥천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흥천사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군산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매년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고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왔다. 또 정기적으로 사찰과 가까운 해신동 주민센터에 자비의 쌀을 전달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일광사,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장학금 200만 원 정읍시장에 전달
승천 스님, 부임 후 꾸준한 봉사활동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가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일광사는 1월 26일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일광사 연꽃신도회 불자들이 모금한 장학금 200만 원을 계묘년 정초기도를 위해 일광사를 방문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전달했다.

승천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지역의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나눔을 하게 됐다”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천 스님은 지난 1985년 일광사 주지로 부임한 후 신도회를 활성화하고 교도소와 군부대, 복지단체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해외구호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마하연 승가회를 통해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 부처님오신날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재소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34년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광고등학교 제71회 졸업식 개최



불교종립학교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정광고등학교(교장 이동배)는 1월 26일 교내 룸비니강당에서 제71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덕문 스님과 연성스님(빛고을포교원 주지), 이동배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입학식도 하지 못한 채 3년간 가장 특별한 학교생활을 했던 344명의 졸업생이 참석했다.

이동배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입학을 했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졸업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졸업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늘 자비심을 베풀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